

# 홍성 홍죽읍성

## (洪城 洪州邑城)

지정번호\_사적 제231호

위 치\_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00-2번지



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은 고려시대부터 서해안권의 행정·교통의 중심지로서 번성했으며, 1895년에는 현재의 평택부터 서천에 이르는 22개 군현을 관할하기도 했다. 『신증동국여지승람』(1530년)에서는 “홍주는 호서의 거읍이고 그 땅이 넓고 기름지며, 그 백성이 번성하여 난치의 고을로 불려 왔다”고 적고 있다. 그 가운데 거친 풍파의 세월을 견딘 역사의 현장이 있으니 바로 홍주성이다. 홍주는 홍성의 옛 지명이다.

홍주성은 길이 약 1,772m의 성벽 가운데 약 800m의 석축 성벽이 남아 있고, 현재 동문인 조양문(朝陽門)과 서문·북문, 그리고 아문과 산성이 포함되어 있다. 처음 축조된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며 조선 초기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각 관읍의 읍성을 새로운 규식에 맞추어 수축하게 하였을 때, 이 성도 1451년(문종 1)에 새로 수축되었다. 이때 성의 규모는 성 둘레 4,856척, 높이 11척이었으며, 성첩 608개, 적대 6개가 설치되었고, 성 안에는 우물 2개가 있었다고 한다. 현종 때 한계수가 중수하였고, 1824년(순조 24)에 진장 김계묵과 목사 이헌규(李憲圭)가 수리하였다고 수리기적비에 전한다. 이후, 1870년(고종 7) 목사 한응필이 조양문·경의문·망화문·관영을 지었는데, 이 중 조양문 현관은 대원군이 친필을 하사하였다. 현재의 조양문은 1975년 완전 해체, 복원된 것이다. 한편 1978년 10월 7일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5의 지진으로 성곽의 일부가 붕괴되어 1979년부터 복원작업에 착수하여 1982년 부분적인 보수를 완료한 바 있다. 아문은 조양문의 문루를 설치할 때 함께 세운 것이며 ‘홍주아문’이란 글씨는 홍선대원군이 직접 썼으나 현재 남아있지 않다. 우리나라 아문 중에서 가장 크고 특이한 형태를 지니며 조선시대 관아의 구조와 형태를

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.

홍주성은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6년 부여 홍산의 무량사에서 시작되어 홍주로 진격하던 ‘이몽학의 난’이 평정된 곳이기도 하며, 1895년 동학 농민운동 때에는 관군과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져 동학군이 큰 희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성내 유적도 상당히 소실되었다. 또한 1905년의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킨 민종식·안병찬 등이 이듬해 5월 19일 1,10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당시 이 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공격하여 덕산으로 퇴각시키고 점령한 항일의병 전투의 현장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.

(자료제공 : 충남역사박물관)

